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1월 25일(금)

(음력 12월 20일)

Пятница

25 января 2019г.

№ 3(11682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2019년은 러시아 극장의 해다. 1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국 극장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23일부터 하바롭스크 국장이 사할린무대에서 3가지 연극을 보여줄 것이다. 사할린극장 배우들은 24일 캄차트카로 떠나 공연을 할 예정이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극장에서 축사를 한 사할린주정부 아.자이체브 부수상.

(이에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2018년 물가상승 2.8%에 달해

2018년에 사할린주 물가상승은 2.8%에 달했으며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100.4%였다. 물가지수는 소비가 가장 많은 품목과 서비스 목록에 따라 매월 기록된 가격에 근거해 추출했다.

작년에 식품류는 4% 상승했으며 무엇보다 밀가루의 가격은 43.4%, 설탕은 27.7%, 쌀은 26.2% 상승했다. 육류의 가격 상승은 닭고기가 23.9%, 돼지고기가 18.2%, 쇠고기가 8.5%, 가공육제품은 6.2% 올랐다.

우유 및 우유제품은 5.8%, 치즈는 5.3%, 버터는 5.2% 가격이 올랐다.

12월에 관찰된 식품 품목 중에서 가장 가격이 가장 높게 상승했다. 곡물은 1킬로그램당 평균 69루블리에 매매되었고 밀가루의 가격은 4.1% 올라 평균 킬로그램당 48루블리에 매매되었다.

육류 제품들 중 가격 상승은 칠면조 고기가 2.3% (1킬로에 439루블리), 양고기는 2.1% (1킬로에 555.47 루블리), 냉동, 냉장 닭고기는 2.0% (1킬로에 191.59 루블리), 뼈 쇠고기 0.5% (1킬로에 444.35 루블리), 돼지 고기는 0.4% (1킬로에 463.82 루블리) 올랐다.

다른 관찰된 식품 품목들 중 가격 상

승은 멸균우유가 3.1%, 버터는 2.9%, 냉동 통생선은 2.7%, 설탕은 2.1%, 쌀은 1.7%, 달걀, 고품치즈와 크림치즈, 훈제육류는 1.4% 올랐다.

과일 및 채소는 작년에 2.6% 하락했지만 지난 12월에는 0.9% 상승했다. 2018년에 대부분 가격이 상승해 토마토는 14.2%, 사탕무(비트)는 12%, 사과 8.9%, 배는 6.9% 올랐다. 동시에 오이는 32.6%, 양배추는 2.6% 저렴했다.

그러나 12월에 가격이 상승한 채소들은 양배추가 5.9%, 감자는 3.7%, 토마토는 1.7%, 당근은 1.4%, 비트는 0.7% 올랐다. 평균 킬로그램 당 가격은 양배추가 24.27 루블리, 감자는 33.19 루블리, 토마토는 190.9 루블리, 당근은 46.53 루블리, 비트는 42.51 루블리였다.

비식품류 가격은 작년에 1.7%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담배류가 12.4%, 자동차 휘발유가 5.3% 상승했고 의약품은 1.4% -1-7% 인상했다.

디젤의 평균가격이 올라 2018년 12월에 10.7% (2017년에는 9.5%), 휘발유는 4.1% (2017년에는 3.9%) 상승했다. 12월에 사할린주에서 디젤의 평균가격은 리터당 54.39 루블리 (2017년 12월 - 리터당 49.08 루블리), AI-

92 휘발유는 리터당 45.99 루블리, AI-95는 리터당 47.89 루블리, AI-98는 -리터당 51.49 루블리였다.

관찰된 비식품 중 가격 상승은 이불 시트가 2.3%, 여성·아동·남성 의류가 0.4%-1.6%, 남성 신발이 0.7%, 담배 제품이 0.6% 올랐다.

연간 서비스 분야에서 가격은 2.8% 상승했는데 해외관광 분야 서비스는 20.4% (중국 관광 25.6%, 태국 휴양관광 22.6%, 그리스 관광 4.9%) 상승했다. 고등 및 중등 교육비용(대학 및 전문대)은 13.2%와 48%, 요양 및 재활 서비스는 9.1% 인상되었다.

소비자 물가변동과 함께 최소 식품 세트의 가격도 변동되었다. 최소 식품 세트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식품류 33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12월 말 사할린주에 월 평균 최소 식품세트 공시 가격은 5511.57루블리로 11월에 비해 1.1% 상승하여 (2018년 4.8%)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5375.69 루블리, 포로나이스크에는 5223.98 루블리, 코르사코브에는 5377.08루블리, 오히는 6323.42 루블리에 해당되었다.

(사할린주통계국 자료에서)

단신

주지사 권한 대행, 지방 시찰 시작

지난주 말부터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 권한 대행은 주내 지방 시찰을 시작했다. 네웰스크구역을 방문하여 항구, 주택단지 등을 돌아보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고르냐크>석탄업체 지도자들,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주지사 권한 대행은 네웰스크 주민들의 가장 걱정거리인 석탄 분진 해결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그중 채굴된 석탄을 처리 및 이송 시 보호막 처리, 현재 구역 내 공기 상태를 규칙적으로 검사하고 보고하는 방안을 내놓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네웰스크 지진 이후 건설된 주택들의 상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주초에는 우글레고르스크를 시찰해 문제점들을 보고받았다. 이 지역에 병원에 8명의 전문의 부족해 생기는 문제, 사호초르스크에서는 새로운 마을 형성과 함께 아동들을 수용할 교육시설 요청 등, 우글레고르스크의 춘추기 오염되는 물을 정화를 위해 여과정수장과 추가 물탱크를 설치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이 지역 실내 아이스하키장이 개장해 개장식에 참석하고 손챗스키 탄전을 방문했다. 주지사 대행은 지방을 순회 시찰할 예정이다.

사할린 주지사 및 주정부 관리실장으로 안드레이 스투피신을 임명

사할린 주지사 및 주정부 관리실장으로 안드레이 스투피신이 임명되었다. 그가 맡은 부서의 주요 임무는 주지사 및 주정부 사업의 물류 및 재정 확보이다.

1965년생인 스투피신 관리실장은 1993년에 니즈니놉고로드 국립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니즈니노브고로드 주정부에서 부지사 지원활동부서의 부장을 역임한 바 있었다. 2007년부터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했고 2019년 정월까지 <아톰에네르그로프로젝트>니즈니놉고로드 엔지니어링회사의 운영관리국 국장을 맡았다.

연초부터 사할린주에서 가리비 400톤 채취

사할린주 업체들이 올해 정월 상반기에 조개(가리비) 399,61톤과 성게 459,563톤을 채취했다고 전해졌다. 가리비 전량은 세웨로쿠릴스크구역 오네코탄섬 수역에서 채취했다. 성게는 주로 남쿠릴 수역에서 채취했고 타타르해협에서는 값비싼 해산물 11톤을 채취했다. 현재 오후즈크해에서 사할린업체들이 명태와 청어잡이를 하고 있다. 어획량은 연초부터 명태가 2만9000여톤, 청어가 약 1000톤이라고 사할린주수산업체연합회가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초등학교 입학 모집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각 학교에 입학생 모집이 시작되었다. 지원 접수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학생이 등록된 거주지에서)는 1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가 이뤄지고, 2단계로 공식이 있을 경우 추가모집(거주지와 관계 없이)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이고 입학 신청은 전자메일로 진행된다. 1월 22일 오후 4시에 이미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들에 2000여 명의 입학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구독을 계속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14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1월 22일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들에서 입학 신청접수를 시작한 날 본사 **배순신** 기자는 1990년부터 사할린에서 한국어 채택 학교로 알려진 동양 김나지아 (전 제9동양어문 학교) **굴라코와 마리나 엠게니에브나** 교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학교에서 오래 계셨지요?
- 13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교감이 되었고 3년 전에는 교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저에게는 이 학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 학교를 소개해 주시지요.

- 잘 아시다시피 이 학교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 우리 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했죠. 1946년에 일본 남성 김나지아를 토대로 하여 제31초등학교와 제 35초등학교를 개교했는데 1947년에는 이 두 학교가 제9일반학교와 제8조선학교로 재편성되었다가 1963년에 조선학교가 폐교된 후 제9중학교로 변경되었지요.

현재 학교에서는 74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등반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반은 1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각 반은 30명씩 짜 있습니다.

교사진은 40여 명의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관리 직원들을 포함하면 50명 정도 될 겁니다. 학교에 젊은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의 평균 연령은 35세입니다. 외국어교사 경우에는 더 젊어



요. 평균 연령이 약 30세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의욕도 많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창작의지도 강해요. 정년퇴직을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그 수가 별로 많지 않아요. 교사진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학교를 좋아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 외국어는 몇 학년부터 배우는 건가요? 한때 동양어를 2학년부턴 가르쳤다고 알고 있어요.

현재 필수과목으로 영어는 2학년부턴 가르치고 있어요. 동양 언어 수업은 5학년부턴 하고 있습니다. 초등 4학년을 마치고 다른 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는 영어를 위주로 하는 인문 방향의 학교입니다. 10학년에 1주일에 영어가 6시간이 배정돼 있어요. 또 우리 외국어교사들의 수준이 꽤 높다고 봅니다.

동양언어에 있어서 요

나는 우리 학교가 아주 좋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굴라코와 마리나 교장과의 인터뷰

구가 가장 많은 과목은 한국어입니다. 현재 2반을 제외하고는 5학년부 11학년까지 14개 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사는 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어입니다. 현재 일본어 교사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교사는 한 분인데 그만큼 중국어반이 적은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동양어문 교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한국어와 관련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 해마다 저의 졸업생 일부가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2급을 취득하는데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2년 전에는 한 학생이 4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해마다 1-2명은 한국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나 일본어과에 입학하기도 하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문대학에 입학하여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동양김나지아는 외국 학교와는 교류를 합니까?

- 네, 2017년 5월에 우리 학교가 강원도 묵호고등학교와 국제자매결연에 대한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 교육청에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학교 학생들과 교사단을 강원도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 협약서를 체결했죠. 그에 앞서 오랫동안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강원도 학교 교장단도 사할린을 방문했었고요.

작년 9월에 묵호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고, 부평학교 학생들도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아를 방문했지요. 학생들의 집에서 머물면서 사할린에서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학교 수업에도 참관하고, 여러 박물관을 견학하고, 야외 휴식 등을 즐겼습니다. 학생끼리도 교류를 잘 했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 4월에 답방으로 강원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거기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입니다.

- 제가 알기엔 마리나 엠게니에브나 선생님은 작년 10월에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 김주환)을 통해 한국에서 열린 한국어 채택학교 교장연수에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어채택학교 교장으로 서 역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육기관도 방문하고 한국 교육시스템도 파악할 기회가 있었고,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문화탐방도 했죠. 저는 이와 같은 교육자들의 방한 프로그램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기획들에 대해 알게 되어 같이 고민해보기도 합니다.

- 최근에 동양김나지아에서 실시하는 동양어문축제가 교장선생님의 기획이죠?

- 네, 맞습니다. 처음 교육자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후 고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해마다 음력설을 맞아 학교 차원에서 한민족 놀이를 비롯해 여러 게임, 행사 등을 해왔습니다. 이걸 토대로 하여 축제로 키워보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3개 동양언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이 세 동양국가의 문화와 관련된 동양어문축제죠. 다른 학교에서 이 언어들을 배우는 학생들을 초대하여 여러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올해 이 축제를 4번째 개최할 건데 해마다 이 축제가 확대되어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비롯 13개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 143명이 참가했는데 올해는 규모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축제는 하루 동안 진행하는데 주로 경시대회, 스포츠경기, 공예를 비롯해 여러 활동교실, 노래 및 음악경연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마감은 시상식과 함께 갈라공연으로 합니다. 이 행사에 꼭 일본과 한국 외교공관 대표, 사회단체 활

동가, 교육부 관계자 등을 초대합니다.

올해 이 행사는 2월 7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좋은 축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 네, 해마다 찾아왔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사할린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군대 장교 부인으로 1997년에 사할린에 왔습니다. 처음엔 포로나이스크구역에서 머물다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신기한 것은 탐보브 출신인 저의 할아버지가 장교로 4년 사할린에 복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하고 같이 왔었는데 저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여가에서 학교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포로나이스크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복무를 하셨습니다. 또 외숙모께서는 사할린 출신인데 알고 보니 바로 우리 제9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외숙모도 저처럼 교편을 잡은 분이셨고 거의 30년간 교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9학교를 마쳤다는 얘기를 듣고 외숙모의 졸업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제9학교와 제가 특별 인연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고, 교사진도 좋고, 이 학교를 참 좋아한다고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에서 지역단체 <대 도전>과학기술 경연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1월 15일부터 사할린에서 <대 도전>전국 과학기술기획경연대회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 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기획적, 과학적, 기술공학적, 독창적, 창조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창작력을 발굴 및 발전시키고 과학적 지식과 성과를 널리 알리려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하고 있다. 경연대회에는 5개의 다양한 방면(: 농산업기술과 생명공학, 무인 교통수단과 논리 체계, 극지와 세계 해양탐사, 현대 에너지와 똑똑한 도시)에서 과학기술적 기획의 아이디어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5학년-10학년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지역단계의 경연은 1월 15일부터 4월1일까지 두 단계-예선(통신)과 결선(직접 참가)-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역 과학기술경연대회 참가신청서는 2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예선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지역단계 우승자는 소치에서 열리는 <대 도전> 교육프로그램의 예선(통신)에 참가할 수 있다. 예선 우승자들은 방학 기간에 소치 <시리우스>교육센터에서 개최되는 <대 도전>과학기술프로그램에 초청된다.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На Сахалине с 15 января нача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

тов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целях выявл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у школьников творческих способностей и интереса к проектной, научной, инженерно-технической, изобретательской, твор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опаганды научных знаний и достижений.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школьники с 5 по 10-ый класс с собственны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иде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по пяти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е 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беспил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освоение Арктики и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современная энергия и умный город.

Региональны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15 января по 1 апреля 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два этапа: отборочный (дистанционный), финальный (очный).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будет вестись до 20 февраля. Отборочный этап продлится до 10 марта.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отборочном (очно-заочном) этап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 Сочи. А победители приглашаются на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о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в Сочи на баз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ириус".

2019년부터 모든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가 주어진다

10개월 만에 '소가즈' 의료보험회사 사할린지부는 필수의료보험에 가입된 6만8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가장 많은 건강검진 서비스(60%)는 18세부터 54세까지 연령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 그중 연령대의 비율은 여성이 51%이고 남성은 49%였다. 건강검진 결과 주민의 42%가 건강검진 후속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발견하고 병의 진전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종합검사이다.

이 의료서비스는 필수의료보험증으로 3년에 1번 무료로 제공된다.

2018년부터 50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을 위한 유방 조영술을 포함해 고령의 주민들을 위한 추가검사가 2년에 1번 진행되고 있다. 검진은 하루 만에 가능하며 질병의 초기 단계를 발견하고 조기에 대처하여 병의 발전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1월1일부터 주내 근로자들은 건강검진을 위해 3년에 1번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퇴직 연령의 근로자들은 해마다 2번의 유급휴일을 받게 된다고 보험공단 측이 전했다.

С 2019 года все работник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дин оплачиваемый выходной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За 10 месяцев более 68 тысяч граждан, застрахованных по обязательному медицинск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ОМС) в сахалинском филиале страховой компании "СОГАЗ-Мед", прошл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услуг по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60%) пришлось на людей работ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от 18 до 54 лет), при этом доля женщин в эт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составила 51%, мужчин — 49%.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у 42% граждан выявлены заболевания, требующие дальнейшего лечения и последующего диспансер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 комплекс обследован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выявление и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развития заболеваний.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оказываю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 полисам ОМС один раз в три года.

(7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주현절

1월 19일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주현절을 기념한다. 이날 사할린주 내 여러 곳에서 정교인들이 어른 호수나 강에 구멍을 뚫고 성수식을 마친 물에 들어간다. 올해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전통



적으로 위스크레센스키 성당에서 가가린공원 웨르흐네의 호숫가까지 정교회 교인들이 행진하고 호숫물에 들어갔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과 한국: 문화 및 교육을 통해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 형성

임 엘비라, 사할린국립대학 한국어교수

(전호의 계속)

상징 문화 (꽃, 동물, 색의 의미, 지역 특산물, 숫자의 의미 등), 교육제도 문화, 의식주 문화, 가정교육 문화, 명절 문화, 사회적 문제 검토, 비언어적 의사 소통 (제스처, 몸짓, 자세), 언어적 의사 소통 (높임말, 호칭 등)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러-한 문화를 공부한다. 각 주제에 따라 준비하면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타문화를 습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를 배울 때는 수능시험문화를 비교해 봤다. 한국은 수능시험을 하루에 다 보는 것은 러시아 학생들한테 깜짝 놀랄 일이었고 과거 시험에서 비롯한 수능시험에 관한 다양한 문화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에서는 수능시험은 선택한 과목에 따라 1주-2주까지 걸리고 하루에 한 과목만 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 3일 정도 준다. 또는 상징 문화를 배울 때는 러시아 사할린한테 한국의 화환이 장례식을 의미하고 화환이 서 있는 가게나 건물을 보면 누군가 장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축하할 일이면 꽃다발을 갖고 가고 화환은 장례식 때만 보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주제에 맞는 텍스트, 속담, 영상을 준비하기도 한다. 결국 학습자들은 수업 때 타문화에 대한 정보를 단순한 전달 측면에서 보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하고 비교하면서 흥미를 느낀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수업은 학습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특정 언어 능력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 문화 간의 흥미를 가져야 교육과정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익혀야 하는 문화적 능력 즉 대상으로 하는 문화에 적합한 사회적 생활에 대한 지식은 목표 언어 학습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문화는 단지 언어 수행 능력인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의 4가지 능력에 덧붙여지는 새로운 능력이 아니라 문법적 능력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자들은 외국어를 배울 때 자기의 나라의 문화와 비교하며 배우는 것이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더욱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외국어와 그의 문화를 배우는 목표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 풍습, 사고방식까지 이해하고 분석하며 인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와 비교하면서 차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구성원들을 통합한다. 또는 독창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언어적 학습과 문화적 학습 능력을 동시에 익힐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

러-한 대외관계와 경제협력이 효과적인 방향으로 활성화 되려면 우선 두 나라 간의 이해력이 확실해야 합니다. 각 민족은 문화 코드가 있듯이 러시아의 문화 코드와 한국의 문화 코드가 있다. 본 본문에서는 러-한 대학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상호문화를 알 수 있는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tandem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을 권한다.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타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민족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지고 타문화의 관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기는 갈등을 극복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호문화 간의 의사소통 tandem 수업은 상호문화 간 교류 능력, 비교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실행한다.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학생과 교환학생으로 온 러시아어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는 수업이라 한국어와 러시아어교육은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의 이해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국제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은 러-한 상호문화를 습득하며 새로운 문화적 인제가 되고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다. 대학생들이 상호문화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문화권에 대한 지식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의지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와 그 문화를 안다는 것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데에 비법이었으면 좋겠다. 다문화 의사소통 학습의 효과는 매우 크다. 우선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문화적 지식을 넓히면서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활동을 들 수 있다. 둘째 대상언어를 사용하면서 학습자들 간의 상호 교류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 풍부한 문화의 특성들을 학습함으로써 문화에 대해 학습자들의 생각을 넓힌다. 넷째 학습자들이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자가 되어 문화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신들이 공부하는 대상 문화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문화를 비교하면서 점차적으로 사고의 틀을 발전시키고 학습자 스스로 탐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끝)

렛츠런재단 대표단, 청소년 문화교류 문제로 사할린 방문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렛츠런재단 최인용 사무총장/상임이사, 문시정 차장, 서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정남 단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해마다 키도(KIDO)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사할린을 찾아 사할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합동 공연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한국마사회 산하 농어촌희망재단이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작년부터 사업구조에 변경이 있어서 희망재단이 장학사업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어촌청소년 음악가들의 국제사업이 없어질 뻔했으나 마사회는 모든 면을 고려해 렛츠런재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할린과 한국 청소년오케스트라 문화교류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렛츠런재단은 지난 18일(금) 사할린주 문화부 산하 과학문화예술 교육센터 사무실에서 본 센터와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사업추진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동의하고, 한국과 러시아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연주회를 상호 간 개최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약정 기간은 2년이라고 전해졌다.

이날 사할린주과학문화예술교육센터 엘레나 마노일렌코 센터장과 렛츠런재단 최인용 사무총



장은 올해 사할린-한국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교류 내용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한국 청소년오케스트라(스텝을 포함해 50명 정도)는 5월에 사할린을 방문하여 협연을 하고 사할린 오케스트라는 9월에 방한하여 공연을 하기로 했다. 양측은 공연프로그램을 반반씩 나누어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할린 방문 시 렛츠런재단 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과 만나 문화교류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사할린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의향을 표명했다. 주한인협회 측에서는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사할린 방문 시 한국 대표단은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을 찾아 사할린희생동포기념위령비에 참배했다.

(본사 기자)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23 января 2019 г. в возрасте 85 лет ушел из жизни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писатель-краевед, педагог,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нтин Ерофеевич Гапоненко.

Константин Ерофеевич — автор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книг и краеведческих публикац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Выигрыш",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Жернова", "Болят старые раны", "Новый дом", "Вслед за ушедшим днем", "Чтобы былем не поросло", "Возвысился душой", "Широкопадская рана", "Женские судьбы". В каждый свой труд он вкладывал самое главное — душу, не терпел формального подхода и всегда

находился в творческом поиск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хорошо знали Константина Ерофеевича по его книге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еревод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носит искренние глубок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Константина Ерофеевича, нас связывали самые теплые отношения.

Юные музыканты Сахалина и Южной Кореи выступят с объедин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и молодежны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KYDO выступят с объединенной программой.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подписано областны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и фондом Let's run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ремя встречи обсуждались детали совмест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детских оркестров и срок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в 2019 году.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в начале ма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бытие на остров молодежного оркестра KYDO, а в сентябре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отправится Саха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Обсудили стороны и предполагаемый репертуар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Решено, что она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их и русс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Дирижером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выступит Виктория Юхманова.

Обмен молодежными оркестрами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оходит не в первый раз. Корейский коллектив на Сахалине выступал уже трижды, островной детский оркестр выезжал в Сеул на гастроли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Кроме этого, в мае 2018 года состоялось совмест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юных музыкант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ое стало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двух стран,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с 14 лет на курс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уровень,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и др.)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с 14 января 2019 г.

Начало занятий с 11 февраля 2019 г.

по адресу пр. Мира, 83 а, офис 3.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Режим работы:

9:00 – 18:00

Обе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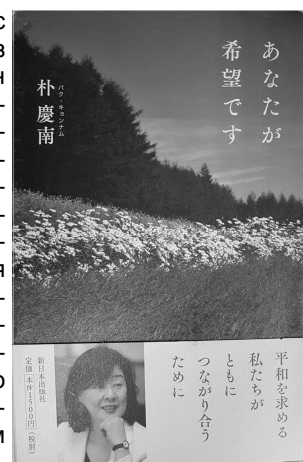
12:30 – 14:00

*При себе иметь фото 3*4

ПАК КЁННАМ НА САХАЛИНЕ

Летом 2018 года с группой туристов из Японии на Сахалин приезжала писательниц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ак Кённам (р. 1950). Прежде ей уже доводилось бы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во время своей первой поездки она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ей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идом группы, которая рассказала о себе. История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ой женщины так поразила писательницу, что результатом этой встречи стало издание книг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Ты есть надежда» (2015).

Интерес писательницы к 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обусловлен личными причинами: отец и мать Пак Кённам ещё в детском возрасте оказались в Японии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родителями. Ввиду раз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они не вернулись на свою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а остались жить в Японии, где и родилась Пак Кённам.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писательница носила японские имя и фамилию, но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меняла их на корейские. Сегодня Пак Кённам пишет книги, проводит лекции, выступая за общество, где ценится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и за мир без войны.



Первая из трёх глав книги «Ты есть надежда» посвящена Сахалину. В ней Пак Кённам не тольк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перипетиях судьбы одной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оказавшейся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но и прослеживает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казывает сложности их репатриации. Писательницу искренне удивляет время, за которое можно преодолеть расстояние между двумя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и совершенно не сопоставимый с ним срок ожидания своего возвращения. Пак Кённам отмечает следующее: «Японский архипелаг граничит с Сахалином и Южной Кореей, однако для меня, родившейся и выросшей в Японии, путь до Южной Кореи, родины моих родителей, оказался очень дальним. Так и Сахалин на долгое время для мног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 тем местом, откуда дорога на родину была закрыта». Писательница не остаётся в стороне от рассказанных событий, в манере изложения чувствуется сострадание и внимание к те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С момента путешествия на Сахалин прошло уже немало времени, — пишет Пак Кённам, — но отзвук его всё никак не проходит». Этот отзвук раздаётся и по прошествии трёх лет после издания книги, и подтверждение этому — летняя группа японских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захотели приехать на Сахалин, прочитав документальную историю писательницы.

Александра Никонова,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г. ХАБАРОВСК

Факульт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Продолжает набор на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орейская традиционная культура

➤ **Форма обучения:** очно-заочная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дистан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 **Кол-во часов:** 252 час.

➤ **Требования к слушателям**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корейский) -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 **Условие** - прохождение аттестации; оплата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учения выдается диплом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образца о присвоении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е –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к высшему 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среднему. Диплом даёт прав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истем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СП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mail: Ase65@bk.ru

В https://vk.com/ase_sr

☎ 8962 154 88 65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и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Ассоци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обязательна

По адресу: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Сахалинская, 219, 2-й этаж. Медицинский центр «ВИФЛЕЕМ-Z3» (район Владимировки, остановка «Спутни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вотсап:

+ 7 962 154 8865 – Наталья Геннадьевн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Стокгольме завершились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КНДР и США

21 января в Стокгольме завершились рабочие переговоры КНДР и СШ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о второму двустороннему саммиту.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Стивен Бигэ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провели ряд встреч. Они проживали в одном отеле в пригороде Стокгольма. В контактах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й входил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и До Хун, выполнявший роль посредника.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стороны провели встречи в самых разных форматах, обсудив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вопросов.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ё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контактов до саммита, намеченного на конец феврал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Д Швеции, переговоры проходили в конструктивном ключе, их участники затронули разные темы,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остроение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ки и долгосроч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 Новому году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селение получит поддержку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ставило меры по оказанию поддержки населению в преддвери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ни включают отмену оплаты за проезд по платным шоссе в период праздника, выделение 3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помощь малому и среднему бизнесу, а также уязвимым слоям насе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в 2,8 раза увеличить объём поставок на рынок 15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тов,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 праздник, а также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которая будет следить за состоянием рынка и ценами. В рамках распродаж в госсекторе реше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кидки в размере от 5 до 50%. Увеличены квоты на продажу различных скидочных купоно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рынках. Помимо этого, вс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парковки, дворцовые комплексы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узеи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бесплатно.

В РК проводится обучающ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всех видов войск

С 21 января по 1 февраля в РК проводятся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ВС, ВМС,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и военных медиков. Они проходят в академиях сухопутных и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сил. В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ах учения будут сосредоточены на повышении понимания целей и оперативных моментов,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проведение обучающих программ в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оведёт и ВВС. Данные учения нацелены на повышение 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разными видами войск и уровн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ни проводятся с 2012 года. Будущие военные медик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них впервые.

В РК быстр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корь

С начала года в РК зафиксирован быстрый рост количества больных корью. 21 января очередной случай заболевания был зафиксирован в городе Анса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Там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девять больных. В Сеуле и Синане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также подтверждены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о больных составляет 30 человек.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контроля и профилактики заболеваний объявили три зоны начала эпидемии кори — города Тэгу, Кёнса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а также Ансан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ирус был занесён в страну из-за рубежа, причём разными путями. В Тэгу и Кёнсане корь филиппинского типа, а в Ансане и Сихыне - тайского типа. Половина заражённых приходится на детей и молодёжь от 20 до 40 лет.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отратит около 600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намерена к 2022 году затратить 590,3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втомобилей. В особенности это касается водород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Местные власти указывают, что данные меры нацелены на реализацию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водород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также на защиту населения от влияния микропыли. Власти нацелены на три гла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 — электромобили, водородные автомобили и электробусы. Будет уделено внимание вопрос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рядных станций для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создание комплексных заправок для газа и водорода.

(RKI)

СМИ: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т с госвизитом Вьетнам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хочет совместить встречу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со сво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во Вьетнам. Официальный Ханой ведёт согласование этого вопроса с Пхеньяном, чем и объясняется, что до сих пор Вашингтон не может назвать точные дату и место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ое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Енхап" со ссылкой на источники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Вьетнама.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ередал правительству Вьетнама свое пожелание посетить страну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визитом", - цитирует собкор "Енхапа" во Вьетнаме слова источника, который высказался на условиях анонимности. Собеседник, правда, признал, что "пока ничего точно не решено". Другой источник добавил, что "21 января пройдет заседание Политбюро Компартии Вьетнама, где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этот вопрос".

Отметим, что ранее и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о "Рейтер" заявил о слухах по подготовке властями Вьетнама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визиту Ким Чен Ына.

Если эта информация верна, то она объясняет, почему США пока не могут сообщить точную дату и место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Это, кстати, и подтвердил второй источник агентства "Енхап". Ким Чен Ын хочет совместить встречу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с госвизитом во Вьетнам, подготовка последнего требует некоторого времени и согласо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деталей. Исходя уже из этого, и будет решено по поводу аналогичных подробностей второго саммит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и Ким Чен Ына.

Напомним, что США уже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февраля", а точное место "будет названо немного позже, но очень скор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се считают, что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ой страной для приема этого саммита является как раз Вьетнам. В этой связи "Енхап" озвучила весьма логичную историю,

которая объясняет остающуюся некоторую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по саммиту США-КНДР.

Источники не смогли сказать, что пройдет раньше - госвизит Кима во Вьетнам, либо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Однак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госвизит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влияние на подбор места встречи с Трампом. Если госвизи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стоится, то неизбежно Ким будет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в столице - Ханое, а потому и саммит с Трампом,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ойдет там же. Впрочем, пока до конца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лидеры КНДР и США увидятся в курортном городе Дананг, что в центре Вьетнама, на побережье Южно-Китайского моря, примерно в 750 километрах к югу от Ханоя.

По некоторым слухам, США предлагают встретиться именно в Дананге, тогда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ДР в связи еще с госвизитом не хотят "кататься" во Вьетнаме и настаивают на Ханое. Впрочем, как отмечает "Енхап", есть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цы согласятся побывать в двух городах, но тогда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сценарием является "сначала госвизит в Ханой, затем саммит с Трампом в Дананге".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буквально на днях в Вашингтоне побывал помощник Ким Чен Ына Ким Ен Чхоль, который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 госсекретарем Майком Помпео. Параллельн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 Стокгольме идут консультации между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ве Сон Хи и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США по КНДР Стивеном Бигэном.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Ким и Помпео в Вашингтоне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аспектах" будущего саммита, включая место и время, тогда как Чхве и Бигэн уже согласовывают конкретные детали, включая содержание будущи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лидеров в плане взаимных уступок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НДР и компенсации со стороны США з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шаги Пхенья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целилось на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й рынок Росс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будет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местные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намерены налад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РФ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делегация коре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для изучения рынка.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прошедшей в Сеуле 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ую прове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KHIDI) и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торговли и инвестициям (KOTRA).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заявлено,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чало прием заявок от местных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войти в состав "Евраз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сотрудников индустр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019" и в середине мая посетить Москву, Киев и

Варшаву.

В ходе поездки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стречи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из РФ, Украины и Польши, а также оказана иная помощь бизнесменам, планирующим выйти на эти рынки. В случае, если участвующие в делегации компании подпишут какие-либо соглашения или декларации о намерениях, 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компенсирует им часть транспортных и прочих расхо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оездкой.

По словам одного из сотрудник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они видят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в рынках стран СНГ 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особо выделив при этом Россию. "Мы намерены сначала тщательно изучить ситуацию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каждой из стран, а затем сформировать конкретные проект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пояснили в ведомстве.

Было признано, что Корея

хочет в итоге выйти с пакетны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больничные системы и услуги в сфере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и лечения.

Отметим, что в ходе прошедшей 17 января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и био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он Хи Мок в качестве приоритетных для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новом году стран назвал "государства СНГ".

Вон отметил, что он уже побывал в ряде стран СНГ и лично убедился в наличии там больши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ей. По его словам, в тех странах хорошо относятся к товарам и лекарствам из Кореи, что создает благоприятную атмосферу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ьская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будет значительно изменена

Сеульская площадь Кванхвамун будет расширена. Как сообщили 21 января в столичной мэрии,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нового облика площади победу одержал проект «Deep Surface: пробуждая прошлое и будущее». Самое большое изменен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проезжая часть проспекта Сэчжон-дэро со стороны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будет присоединена к площади, что увеличит её в 3,7 раза. Памятники королю Сэчжону Великому и легендарному флотоводцу Ли Сун Сину будут перенесены в места, откуда их будет видно с любой точки. Кроме того, под площадью Кванхвамун будет создан «подземный город», который

протянется до здания мэрии. Там появится также станция, которая объединит пять линий метро, в том числе маршруту GTX-A,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от станции Унчжон города Пха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до станции Самсон в Сеуле. GTX - это первая в РК скоростная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линия,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од землёй, соединяя окраины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с центром Сеула. От Кванхвамуна будет проложен пешеходный туннель длиной 4 км, который протянется до района Тондэмуна.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обновления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составляет 104 млрд вон или 92,2 млн долларов.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до мая 2021 года.

(RKI)

Тысячи островитян отправятся на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этом году отдохнуть и поправить свое здоровье смогут новые категории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еще 1200 человек. Для этого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или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сего же этой мерой соцподдержки воспользуются порядка 3700 островитян. Ранее глава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чал, что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отдыха – важ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людей почтенного возраста.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 один из санаториев, куда пожилым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даются бесплатные путевки. Здесь они 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завести друзей и пройти различные процедуры для повышения иммунитета и лечения хрон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 У нас есть магнитотерапия, ультразвуковая терапия, светотерапия. Отличн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а себя процедура анотрон, которая улучшает мозговое кровообращение, стабилизирует артериальное давление, - отметила лечащий врач санатория Вера Тимошенко.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е лечение в учреждении сейчас проходит 90-летняя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астасия Самсонова. Каждое утро она пьет кислородные коктейли. У женщины нет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поэтому другие процедуры ей не назначали.

- В санатории я отдыхаю, знакомлюсь, общаюсь. Здесь мне не нужно заниматься бытовыми вопросами, - говорит пациентка. - Конечно,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находиться здесь: кормят вкусно, работники очень отзывчивые.

Право на льготу с 2019 года появилось у участник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ывших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узников фашизма и награжденных знаком «Жителю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Также в список вошли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инвалид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войны, граждане, которые имеют стаж работы в рай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и приравненных местностях 40 и более лет, почетные доноры.

Кроме того, с этого года увеличится количество неработающих пенсионеров, имеющих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х путевок. Чаше смогут отдыхать и многодетные матери, награжденные медалью «Материнская слава» - раз в два года, хотя раньше было раз в три года.

До нововведений бесплатные путевки на отдых в областных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ежегодно предоставлялись участникам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Героя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награжденных орденами Славы, Лени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пенсионерам из числ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с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ей обеспеч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й коллегии Управления МВД России, посвященной итогам работы ведомства в 2018 году. По его словам, обеспечение правопорядка и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общая задача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ей.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черкнул значимость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и в решении задач по борьбе с преступностью и обеспечению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в области почти на 12,7 процентов снизилось чис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также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правопорядок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 Совсем скоро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крупное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 первые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провест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И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составляющих этой задачи –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этому призываю оргкомитет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тесной работе с сотрудниками органов внутренних дел,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на коллеги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дальнейшего оснащ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дорог камерами фото- и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приобрет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2019 году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ят более двухсот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Средства позволят закупить 29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патрульно-постовой службы, дежурных частей, участковых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полиции. На объектах ГИБДД появятся 18 новейших систем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Органы и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учат 400 комплектов компьютерной и электронной оргтехники.

Из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оду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было выделено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За минувший год островны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 свыше

800 ребят из 125 школ - воплотили в жизнь 116 своих идей. В разны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велодорожки, скейтпарк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обустроены пришкольные территории, установлены памятные знаки. Средств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инициатив были выделены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который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стране.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формирует у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и понимание работы систе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 Проект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нацелен на создание в регионе эффективных механизмов участи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Учащиеся 9-11 классов получают реаль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предложить идеи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сво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но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их реализаци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ин из проектов «Молодежного бюджета» - «Точка истории», был придуман и реализован школьникам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Его автор Дарья Баланова раскрыла подробности.

- Мы подумали, что было бы неплохо рассказать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о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местах, показать, насколько краси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концепций проекта, но в итоге мы остановились на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баннерах, - пояснила школьниц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районе появились 13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анелей, рассказывающих о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х города, 2 беседки и 1 указатель.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и других хороших примеров реализации «Молодежного бюджета». Так, углегор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редложили из заброшенного пустыря сделать сквер «У моря», в котором могли бы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люди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В обустроенном месте отдыха появились тренажеры, качели, столик для игры в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лавочки и освещение.

Учащиеся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села Мгачи разработали и реализовали проек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береговой зоны. Они не только навели порядок

на замусоренном пляже, но 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бустройстве детской и спортивной площадок.

Ряд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 на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как, например, инициатива учащихся школы №3 села Огоньки. Они предложили установить мемориальную плиту с фамилиями всех первых переселенцев, основавших село в 1947 году и благоустроить территорию вокруг.

Проект «Молодежный бюджет» стартовал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7 году, в него включились 125 школ региона. За это время его участники добились реализации десятков инициатив. Работа «Молодеж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избавить жителей Невельска от угольной пыли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глава области посетил порт,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города,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и угледобывающей компании «Горняк-1».

— Предприятие дает работу многим невеличанам и формирует бюджет района, но ну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угольная пыль не покидала пределы порт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ой с угольной пылью. Первый из них - убрать из порта уголь, добываемый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Второй – подключить к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Восточную горнорудную компанию», которая на время выделит порту свою мобильную пылеподавляющую установку. Третий – закрыть порт защитными сетками и ввести регулярный мониторинг воздуха в городе.

Предложения главы области были сразу взяты в работу. В воскресенье «Восточная горнорудная компания» отправила в Невельск мобильную пылеподавляющую установку. В понедельник она прибыла в порт. Вместе с машиной отправлены два оператора,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ее пусконаладку. Установка за час работы обрабатывает площадь 2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Дальность действия по горизонтали составляет 60 метров. Распыляемая вода в отрицательных температурах создает на поверхности угольного штабеля ледяную корку, исключающую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действия ветра на уголь.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едприятия «Горняк-1» Ацамаз Тадтаев отчитался перед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что компания приступила к установке новых пылезащитных сеток, которые закроют порт. По словам министра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а Романова, ведомство уже заключило контракт на проведение мониторинга

воздуха в Невельске.

— В феврале проведут восемь выездов в район, по итогам которых главе регион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полный доклад. В конце месяца мы предоставим доклад главе региона по всем показателя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ониторинг продолжится в марте, а в дальнейшем возможны постоян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Угольная пыль – не единственная проблема, поднятая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главы области в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Невельчане, живущие в микрорайоне, построенном после землетрясения 2007 года, которых беспокоит состояние их жилья.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бывав в нескольких квартирах, поручил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рганизовать комплекс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жилых зданий на улицах Победы и Яна Фабрициуса. По его результатам будет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странении выявленных недостатков.

Остров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разработает мер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врачей в местные больницы и поликлиники

Об это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Углегор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Местная больница стала первым объектом, который посети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е. Кадровый вопрос – основная проблема учрежде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больнице не хватает восьм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влечь медработников в Углегорск сложно,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им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служебное жилье и выплачиваются подъемны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общил, что сейчас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работает над повышением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и работы медиков в районах.

— Ситуация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непростая. Но здоровье людей — во главе угла. Наша задача — привлечь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этого минздрав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ет программу,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ую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вышение зарплаты медработникам, увеличение размера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существующих мер соцподдержки,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и.

Главному врачу Углегорской ЦРБ поручено доукомплектовать штат больницы до конца второго квартала этого года.

В Шахтерск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родителями учеников школы №1 и сообщил, что в данно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будет построена новая школа на 400 человек. Место под нее выберут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жителей поселка. Также шахтерцы рассказали главе области, что им очень не хватает дома культуры, и просили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Все озвученные просьбы взяло в работу руководство района.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также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ии нового крытого хоккейного корта каркасного типа. Это первое подобное сооружени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вели его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адресной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лощадь хоккейной коробки составляет 1482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а. Корт вмещает трибуны на 190 посадочных мест, штрафные боксы, скамейку запасных. Рядом обустроена парковка, установлено наружное освещение.

Новое спортивное сооружение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в районе тренировочный процесс,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как среди команд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так и с участием спортсменов области, создаст нормаль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болельщиков.

В дальнейшем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отделения по хоккею с шайбой и фигурному катанию.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жителей города со знаменательным событием и пожелал им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роводить на площадке, регулярно занимаясь спортом.

— В этом году мы построим ещё четыре таких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 в Корсакове, Поронайс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Троицком.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крытые корты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также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роект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квера в центре Углегорс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эта территория не благоустроена и находится в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м состояни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Восточной горнорудной компанией» уже подготовили проект сквера. Здесь планируют создать зеленую зону с арт-объектами, игро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детей, пешеходными тротуарами и парковко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должит поездки п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чтобы от людей узнать о проблема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 найти пути их реш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문장길 서울시의원, '사할린 영구귀국동포들과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더민주당, 강서 2)은 사할린영구귀국 동포들과 만나 '귀국동포 지원조례'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생활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점 등에 대한 대화를 가졌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구귀국 동포들은 총 50명이며, 모두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 이 귀국 동포들은 사할린에 거주하는 자손을 만나려 해도 고가의 항공교통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2000년경 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동포 영구귀국사



문장길 서울시의원

업을 추진할 당시 2년에 한 번 고향방문 여비를 지원하도록 계획했으나, 이후 영구귀국자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4~5년에 한번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문장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사할린영구귀국 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구 귀국한 사할린 동포가 사할린 방문 시 교통비 80만원 지급과 사후 장제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문장길 의원은 "나라가 힘들 당시 지원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귀국 동포들이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에서 말년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배려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하다며, 사할린에 있는 가족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리고 사할린에 있는 자제들이 부모가 계시는 한국을 방문할 시 방문기간이 일주일로 너무 단기간이라며 방문기간의 연장도 부탁했다.

특히 4단지 귀국 동포 대표는 영구 귀국 18년 동안 시의원 등 고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져본 기억이 없다며, 이번 문장길 시의원의 간담회와 조례 성안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중도일보)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 2018 года один раз в два года для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провод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ключая маммографию для женщ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50 до 70 лет.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дня. Оно позволяет выявить болезни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предрасположенность к ним, а также предупредить их развитие.

С 1 января 2019 года работающие граждане имеют право получить оплачиваемый выходной день раз в три года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а работники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 два оплачиваемых выходных каждый год, сообщили в компании.

2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일본 영화제 개최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이 사할린주 문화 및 고문서보관부의 후원으로 일본영화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옥차브리> 영화관에서 진행된다.

입장권은 <옥차브리>영화관 매표소에서 무료로 받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주요 입장권은 영화 상영 전일에 배급하고 나머지는 상영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일본총영사관에서 전했다. 문의전화 22-41-09.

В февра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японского кино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рганизует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японского кино.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с 1 по 3 февраля в ККЗ "Октябрь".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при предъявлении бесплатного билета, который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кассе кинотеатра "Октябрь",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22-41-09.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билетов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за день до начала показа сеанса, а оставшаяся — в день показа сеанса, сообщает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2월 1일부터 사할린 아동캠프에 전자 메일로 참가신청 시작

2월 1일부터 사할린주는 도시 외곽 캠프지 <레스노예 오제로>, <유빌레이니>와 <차이카>의 입소에 대한 참가신청을 전자메일로 받기 시작한다.

각 지방에 지역 학생 수와 비례하여 캠프 입소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참가신청 접수는 춘하기(봄, 여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09:00-18:00)

추동기(가을, 겨울) 7월 1일부터 19일까지다.

춘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신청서 지원형식

을 소개하고 올바르게 작성하도록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테스트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신청서는 시스템상 고려되지 않으며 2월 1일부터 신청서 형식이 교부된다.

전자메일로 참가신청에 대한 추가정보와 문의 상담은 1월 21일부터 핫라인 전화 8 (4242) 72-26-06로 받는다.

3월 1일부터 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접수자 명단이 공시되며 3월 5일에는 배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기 시작한다. 입소권을 받은 학부모들은 참가비의 15%(약 8000루블리)를 지불하게 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주 예산의 지원으로 입소권을 무료로 배부한다. 이러한 지원책은 1년에 2번 받을 수 있다. <유빌레이니> 입소권 비용은 4만2000루블리, <레스노예 오제로>는 5만6000루블리, <차이카>는 6만 루블리이다.

Прием электронных заявлений на путевки в сахалинские детские лагеря начнется 1 февраля

1 февра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ует электронный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на получение путевок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Лесное озеро", "Юбилейный" и "Чайка".

Каждому муниципалитету определено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в загородные лагеря,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количеству школьников в районе. Прием заявлений пройдет в два этапа: на весенне-летний период с 1 февраля (09.00) до 20 февраля (18.00); на осенне-зимний — с 1 до 19 июля.

Чтобы дать родителям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формой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и по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правильности его заполнения перед весенне-летним периодом, с 23 по 29 января процедура пройдет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Эти заявления не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ся в системе, а только те,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даны с 1 февраля.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вопро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у горячей линии с 21 января: 8 (4242) 72-26-06.

1 марта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будет размещен реестр принятых заявлений, а 5 марта начнется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по тем заявлениям, которые попали в квоту. Родитель при получении путевки оплачивает лишь 15% ее стоимости (в пределах восьми тысяч рублей). Для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путевки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бесплатно,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Эт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можно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ва раза в год. Стоимость путевки в "Юбилейный" составляет 42 тысячи рублей, в "Лесное озеро" — 56 тысяч, в "Чайку" — 60 тысяч.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우리말로 깨닫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

현대는 위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예전보다 더 힘들거나 예전에는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이제는 견디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슬픈 일이 훨씬 많았겠지만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괴롭고 외롭고 서러워합니다. 우울증(憂鬱症)이 늘어나고, 자살이 늘어납니다.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견디기 힘든 일들을 정녕 못 견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농경사회에서는 주로 친지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한번 만나서 살게 되면 몇 십 년을 같이 하거나 평생을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당연히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위로 받는 일이 익숙했을 겁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함께 울고 웃습니다. 위로는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것입니다. 동병상련(同病相憐)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은 늘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님은 존재 자체로만도 위로가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웬지 아무데도 기댈 것 없는 허전함이 생기죠. 나의 그 무엇도 믿어주고 응원하는 분이 없어졌으니 허전할 수밖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어도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기에 우리가 이만큼 덜 외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위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는 분들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면서 외로움은 배(倍)가 되었습니다. 직장은 전쟁터가 되었고,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위로의 존재가 아니라 경쟁의 존재고 스트레스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아래 직원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직장에서 위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위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니 위로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슬픈 게 힘든 것은 외로워서입니다.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것만큼 서럽고 두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의 우리는 위로받을 일은 적어졌을지 모르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역시 적습니다. 요즘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요?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달려가 눈물을 쏟을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을 텅 비우며 서럽게 울 수 있나요? 눈물은 내 감정도 씻고, 상대의 감정도 따뜻하게 하는 명약입니다. 하지만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병은 있는데 약이 듣지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편안함이나 기쁨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기에 깨닫는 것이겠죠. 전헌 선생님은 인생의 선물은 포장 없이 숨겨진 보물찾기라 말씀하시면서 어려움만큼 값진 선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포장 없는 선물>은 어떤 걸까요? 선물은 선물인데 포장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선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포장 없는 선물은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포장이 없기는 한데 숨겨진 보물입니다. 보물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위로는 고통과 슬픔을 견디게 하는 힘이고 따뜻한 어루만짐입니다. 위로는 어쩌면 말이 필요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말보다 눈물이 앞서고, 말보다 몸이 먼저 털썩 주저앉습니다. 맥이 풀려 버리기도 하죠. 말하기 전에 감정의 펄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그런 겁니다. 함께 느끼는 감정에서 위로가 힘을 발휘합니다. 물론 그래도 말은 위로에서 귀한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살아갈 힘을 줍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마디,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한 마디가 이 세상을 살고 싶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넨 위로로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아집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덜 외로워졌으면 합니다. 힘을 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기쁜 일을 더 맞이하게 되기 바랍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코르사코브 한인회 박창순 부회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Уважаемая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Примите самые сердечные поздравления с юбилеем!

Корсаков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благодарна Вам за ваш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и невероятную работоспособность.

Желаем Вам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лены Корсаков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цев

Уважаемая Пак Чан Суни!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Вас с юбилеем! Желаем Ва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отличного самочувствия, весёлого настроения и бодрости. Осуществления всех задуманных планов. Пусть в Вашей жизни будет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интересных событий, радостных встреч, любви близких, счастья и удачи.

РООСК

제 63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1. 목 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9. 4. 21(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구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30분 전

4. 장소 및 시행처 : 사할린한국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시 : 2019. 1.14 ~ 2019. 1.30

나. 교부 장소 : 사할린 한국교육원,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전화: 505696

6. 응시 수수료 : 500루블, 사진 2매 (3*4)

7. 시험결과 발표 : 2019. 5.30 이후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알립니다!

사할린주 한인 협회는

2019년 2월 2일(토) 16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

설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

1945

년 8월

15일 전

출생하신

분들을 초

대합니다.

입장권

은 1월 28

일까지 한

인 문화센

터에서 꼭 받으십시오.

문의전화: 42-40-87

조직위원회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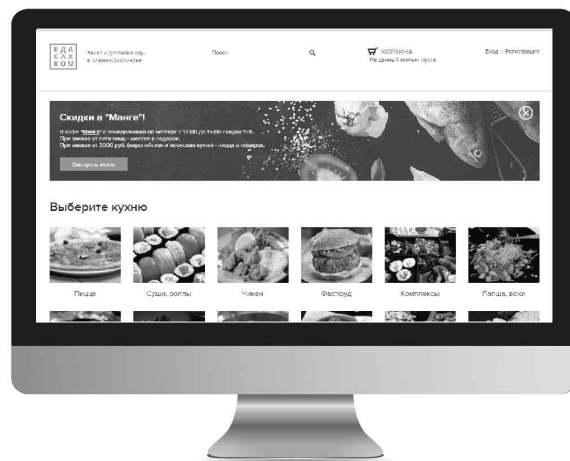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еда.сах.ком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в (зупел)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